

“가람도 현대인 정서 맞게 지어야”

새 천년을 뛰는 불자 (7)

건축사 김정관

사찰이 도심 속으로 내려오고 있다. 그것은 불교가 생활화되고 현대화되었다는 반증이다. 그에 비해 사찰 건축은 옛 모습을 고집하며 실용성이나 형태미에서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사찰 건축의 현대화가 절실합니다. 자유롭고 성스러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공간인 사찰 건축이 오히려 고정관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재료는 콘크리트로 변해 가는데 기와집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종합건축사사무소·건축감리 전문회사인 (주)델타의 대표 김정관(41) 소장이 건축 전문가로서 토로하는 안타까움이다. 일반 건축에서 김 소장은 인정받는 실력자다. 부산시청 설계에 팀장으로 참여했고, 진주 상업고등학교·남창 고등학교·충주 성모학교 등 13개 학교를 설계한 것을 비롯 신라대학 강

사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맹아학교인 충주 성모학교는 빛만을 감지하는 특수 설계로 ‘맹아들의 천국’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사찰 건축 분야에는 아직 숙시원한 시도도 못해 본 아쉬움이 있다. 사찰 건축의 현대화에 대해 품고 있는 김 소장의 실감한 ‘꿈’은 현실화 될 날만을 기다리는 씨앗과도 같다. 틀나는 대로 외국의 사찰, 교회, 성당 건축 방식을 공부하며 사찰 건축의 현대적 의미 부여에 고심하며 속에 품은 씨앗의 발아를 서원하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펴는 공간으로 사찰이 거듭나야 합니다. 전문가를 참여시켜 제한된 도심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적절한 건축비용을 책정해 승가와 재가의 공동 수행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인의 정서에 맞는 포교공간을 위한 충분한 고민이 아쉽습니다.”

부산시청·13개 학교 설계

수행·법회·문화활동 수용
다용도 사찰 만들기 ‘화두’

사찰 건축 현대화의 열쇠는 스님들이 쥐고 있다고 김 소장은 말한다. 그래서 가톨릭 신부 교육과정처럼 승가대학 교육과정에 건축 개론 과목이 편성되길 희망한다. 좋은 건축에 대한 인식은 언젠가 포교 공간을 지을 때 형태보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낸 건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사찰 건축의 현주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사찰 건축의 현대화에는 필수적이다. 비싼 건축비를 들여 기와 대용전을 지어놓고 다른 요소나 식당 공간은 계획없이 처리하는 현실에서 탈피, 통일감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하기 위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훌륭한 디자이너에 의해 탄생한 몸매 편한 옷처럼 사찰 건축이 전문가의 설계로 성스러운, 효과적인 공간 활용, 편의 제공, 문화공간, 휴식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평소 소신이다.

김 소장은 얼마전 부산 관음사 요사채 설계를 맡아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신도들의 법회공간, 신행공간을 분리해 도심내의 사찰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도 했다. 또한 김 소장은 법회위주의 사찰에서 탈피, 지역 문화공동체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사찰을 위해 재가자 대상 건축 교육을 계획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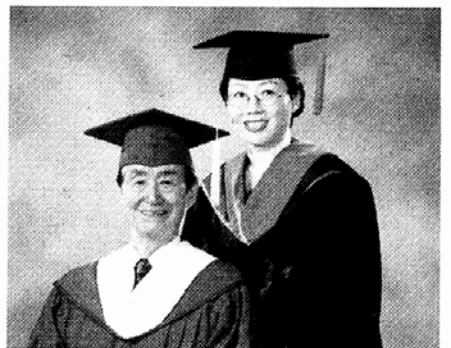
부산 관음사년회 지도법사와 부산년회불자신학회의 회장도 맡고 있는 김정관 소장은 법사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포공스님·김진문씨 동대에 1억 기탁

동국대 불교종합병원건립불사에 뜻을 같이하는 스님과 불자들이 거액의 성금을 잇따라 기탁했다. 동국대 동문인 김진문씨(신성약물 사장)가 11일 병원 건립기금으로 써 달라며 1억원을 동국대에 전달했다.(사진) 이에 앞서 10일에는 서울 불교총대각사 포공스님이 1억원을 기탁했다. 스님은 “불교종합병원 건립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송을 듣고, 그동안 강의와 원고로 등을 받아 모아두었던 것을 가져왔다”면서 “증생구제의 으뜸이 될 병원불사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15일 동국대 졸업식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시아버지 김영수씨(왼쪽)와 며느리 이성숙씨.

시아버지와 며느리 동국대서 나란히 석사모

김영수·이성숙씨 만학 향학열 화제

15일 동국대 강당에서 거행된 동국대 졸업식에서 희수의 시아버지와 불혹의 며느리가 나란히 석사학위를 받아 화제가 됐다.

불교대학원에서 4.38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는 시아버지 김영수씨(77)와 산업기술환경대학원에서 4.25의 성적으로 졸업하는 며느리 이성숙씨(40)가 그 주인공이다. 김씨는 ‘경허 성우의 생애와 선사사’를 주제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며느리 이씨는 ‘청정생산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전략에 관한 연구’ 주제 논문으로 석사모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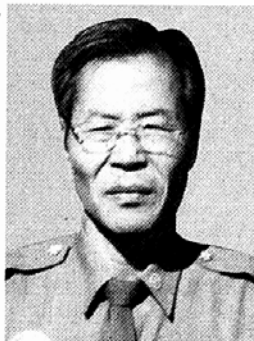
“자기 논문쓰기에도 바쁜 시간에 쉼 없이 나를 대신해 논문 원고를 일일이 입력해 준 며느리 덕분에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김씨는 “불교와 선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남은 여생을 회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며느리 이씨는 “아버님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다”고 석사학위 받는 기쁨을 시아버지에게 돌렸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통장생이 되어버린 시아버지 김씨와 며느리 이씨는 부처님 도량 동국대에서 얻은 값진 인연으로 더욱더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이라며 활짝 웃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opia.com)

“회원 화합에 최선”

광주 운전불자회 새회장 이남식씨



광주광역시 운전불자회는 이남식씨를 2년간 운불련을 이끌어 갈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남식씨는 화합을 최우선으로 꼽는다. 올해는 회원들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회원들이 편히 쉬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고 부처님을 봉안해 회원가족들이 법회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사무실 기금마련을 위해 운불련은 골택시 52대를 운영하고 있다. 골택시 운영 수익은 사무실 기금으로 쓰여 지게 된다.

현재 107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광주 운불련은 이 지역 사찰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교통안배를 맡고 있다. 매월 두 번째 수요일에는 정기법회, 등산, 수련회 등을 통하여 회원들의 친목과 무사고 안전을 기원하며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로서의 소임을 하고 있다. 매년 봄 가을에는 환경캠페인을 비롯해 장애자 가을 나들이, 소년소녀 가장돕기 등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광주=주용직 지사장



전북불교회관서 법문

근일 부석사주지(불향선원장)는 12일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전북불교예술회 및 콘서트 초청 사상강연회에서 법문했다.

선정회 철야법회서 법문

성해 선학원 원장은 19일 선학원 선정회 월례철야장집법회에서 참선 지도와 법문을 한다. (02)732-3327



롬에서 제15기 졸업생 사은회 및 환송법회를 가졌다.

수상(선임장관), 태극 프렘 수상,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며, 각 나라마다 불교성자를 참배할 계획이다.

우리는선우 가족법회 법문

원성스님(화가)은 19일 3시30분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열리는 가족법회에서 ‘열린 마음으로 삶’을 주제로 법문한다.

정년퇴임기념 논총 봉정식

홍윤식 동국대문화예술대학원장은 18일 오후 6시 서울 엠베서더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정년퇴임기념 논총봉정식을 갖는다.

‘장기이식 법문’ 시행 축하모임

성운 생명나눔선교회 부이사장(평노인복지관장)은 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필름에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한국신장협회’ 등 4개 법정 장기등록단체 대표들과 함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졌다.

신록서서 정월방생법회

지흥 조계사 주지는 20일 여주 신록사에서 정월 방생대법회를 봉행한다. 조계사에서 아침 6시 30분 출발한다.

장학금 2천7백만원 전달

서문각 무애문화재단 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12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제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중·고·대학생 등 모두 26명에서 2천7백여 만원을 전달했다.

충청 불교지도자와 민천

한화갑 민천 지도위원은 4일 대전 유성리 배라호텔에서 수석사주지 법장, 선봉회 총재 해명스님 등 대전 충청권의 불교계 지도자들과 민천을 갖고 대화를 나눴다.

은계려 손잡기 운동본부 결성

정각 부산종교문화회의 공동대표는 10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3.1절 기념 은계려 손잡기 운동본부 결성식을 가졌다.

고려시승 성지순례

성원 강화도 선원사 주지는 14일 신도들과 함께 부여고려사, 무량사를 실시했다.

동남아 4개 불교국 방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 불교국사를 방문한다. 캄보디아 훈센 수상 초청으로 국민 방문하는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자미련 불자회 신년하례

박철언 자유민주연합 불자회장은 23일 오후 2시 자유민주연합 중앙당 강당에서 신년하례대법회를 봉행한다. 법문은 용주사 주지 정각스님, 치사는 이한동 총재, 발원문은 이상현 국회의원이 맡는다.

2000학년도 삼화불교대학 학생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학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특별전형30% |
|--------------|------|----------------------|----------------------------|-----------------------------------|
| 불교학과 | 2년 | ■주간40명 ■야간20명 ■통신40명 | · 고등학교 및 수험능력이 있는 동등이상 학력자 | · 조계종 승려·포교사 (타종단승려, 포교사도 가능) |
| 유아교육(유아포교)과 | 4년 | ■통신60명 | | |
| 불교미술(문화재)과 | 2년 | ■통신50명 ■주간20명 |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 30세 이상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신 이력서 전형 가능 |
| 중국어과 | 2년 | ■주간30명 ■통신20명 | · 본교소정입학원서 1통 | |
|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 2년 | ■통신40명 | · 주민등록등본 1통 | |
| 신원방송과(불교보도과) | 2년 | ■통신40명 | · 반명함판 사진 5매 | |

2. 학교연혁

- 1989.7.3 학교성립공고
-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8 불교학생 1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1.3 언론부 주선, 야간 2년제 개설
- 91.8 언론학생 1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선
- 91.8 제1회 졸업생 배출
- 92.2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8 불교학생 1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32명 취득
- 94.1 불교학생 183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149명 취득
-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문교체결
- 95.11 불교학생 1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 96.11 불교학생 196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자격취득
-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 42명 자격취득
- 99.2 제 8회 졸업생 배출
- 99.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22명 자격취득(위탁교육 수료생)
- 99.12 불교학과 95% 포교사 자격 취득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용 거처)
-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과정 입학가능
- 재학생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본과입학가능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2월 25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은 당일 소인 유효)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 ~ 8 FAX. 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 인터넷홈페이지: WWW.Buddhopia.Co.Kr
- ☎ 1335-12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교육부 학력 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만 60세 까지)

| 학과 | 수업연한 | 모집과정 |
|----------|------|-------|
| 고등학교 과정 | 3년 | 주간·야간 |
| 각학년 편입가능 | | |
| 중학교 과정 | 3년 | 주간·야간 |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 전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0년 2월 25일까지
- 문의처 ☎1335-12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2026~8 FAX : (02)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 중국최고 국립한의과 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 학과 | 학제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
| 한의학과 | 5년 | ·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음 |
| 의예과 | 5년 | · 전문대 대학 졸업자(공통) 없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통 |

2. 학교 소개

- ▶ 중국 최고 국립 한의과대학
-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 5개, 제약공장 3개, 교육병원 12개 제약연구소등 완비
- ▶ 외국인 기숙사 및 중국어 어학원
- 주소 : 중국 남경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화 : 25-6798171 팩스 : 25-6798168
- ※ 군대연기 가능
- ※ 졸업후 의사 자격 취득

3. 한국 상담 안내처

TEL : 02-511-2026~8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